

동방신기 3人, MAMA 출연 긍정적 검토중

김성익 · 입력 2009. 11. 19. 15:13 · 수정 2009. 11. 19. 15:13

[JES 김성익]



전속계약 분쟁으로 3:2로 대립하고 있는 동방신기의 실질적인 독자 행동이 결국 표면화됐다.

19일 가요계에 따르면 동방신기의 멤버인 영웅재중·시아준수·믹키유천 세 명은 21일 오후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케이블 채널 Mnet의 시상식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즈(Mnet Asian

Music Awards)' 출연을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다. 21일 생방송을 앞두고 19일 오후 출연을 막판 조율 중이다.

출연이 성사된다면, 동방신기 세 멤버들이 소속사 SM과 법적 분쟁을 하는 동안 처음으로 독자적으로 방송 출연을 하게 된다. 그동안 이들은 법무법인 세종 외에 자신들의 일을 돌봐주는 몇몇 매니저들을 대리인으로 두고 이 일을 추진시켜 왔다.

한 가요 관계자는 "SM과 DSP 등 대형기획사들의 보이콧 하는 와중에 Mnet 측이 동방신기 세 명에 대한 출연 섭외를 했고, 멤버 셋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큰 이변이 없는 한, 오랜만에 세 명이 TV에 출연하는 모습을 시청자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이날 간단한 노래를 할지 또는 참석에만 의미를 둔 채 간략한 인사만 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하지만 아직 Mnet과 세부적인 조율 사항이 남아있기 때문에 출연이 불발될 확률도 여전히 있다"고 덧붙였다.

동방신기가 '엠넷 아시아 뮤직어워즈' 시상식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단순한 행사 참석 이상의 의미가 있다. 자신들의 소속사인 SM이 후보 선정등에 이의를 제기하며 보이콧을 공식 선언한 상황에서, 3명이 다른 입장을 취하는 것을 처음 드러내는 셈이기 때문이다. 유노윤호와 최강창민은 소속사 뜻을 따라 참석하지 않을 계획이다. 세 명이 시상식장에 얼굴을 드러내면, 동방신기가 실제로 3:2로 분리돼 활동하는 모습이 대중에게도 처음으로 노출된다.

한편, 이와 관련 SM측은 긍정이나 부정 등 어떤 견해도 보이지 않고 사태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동방신기 3인은 지난 10월 27일 서울중앙지법은 민사합의 50부로부터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관련, "독자적 연예 활동에 대해 SM이 이의를 제기하는 등 방해를 해선 안 된다"는 결정을 통보받아 이들의 방송 출연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김성의 기자 [zzam@joongang.co.kr] ▷ **MAMA "동방신기도 초청 예외일 수 없다" ▷ SM, 동방신기 3인 측 재반박 "中 공연 돌연 불참선언, 상식적으로 이해 안돼" ▷ 동방신기 3인, SM 반박 "中공연계약서 안보여주고 일방취소 유감" ▷ '오리콘 점령' 동방신기 日활동 여부 '안개속으로' ▷ SM "동방신기 3인, 확정된 스케줄은 이행한다더니..."**

일간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